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음 7월 24일) 제21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작년 살림규모 6조4741억

올해 전북도 재정공시 공개

도민 1인당 지방세 56만원 걷고 269만원 지출

사회복지비율 33.3%로 세출액 중 가장 높아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2018년 전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지난 한해 도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2017년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6조4,741억원이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1,612억원,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조1,33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조1,798억원이다.

지방세는 1조 3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5억원(6.8%) 증가, 이중 취득세 4,978억원(48.1%)와 지방소비세 2,976억원(28.8%)가 가장 큰 비중(76.9%)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5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3만8,000원 증가했다.

총 세출규모는 6조 2,402억원으로 전년 보다 990억원(1.6%)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1조 6,592억원) 분야가 33.3%, 농림해양수산(9,320억원) 18.7%, 일반공공행정(4,332억원) 8.7%, 환경보호(3,499억원) 7%, 문화및관광(3,126억원) 6.3% 순이다.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9만원이며 9개 광역단체 평균 219만원 보다 50만원이 높다.

사회복지비는 주민 1인당 89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비중 33.3%는 전국 지자체 평균(29.5%) 보다 3.8% 높다.

그 밖에 도민 관심이 많은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도 채무액은 전년 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7,437억원이다.

이중 외부 차입금은 없고, 자동차이전 등록과 각종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분이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전년 39만원 보다 1만원 증가한 40만원이다.

지방세 등 체납액은 전년 대비 165억원이 감소한 230억원이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400만원으로 광역 지자체 평균(7,500만원)보다 100만원 낮다.

도 공유재산은 전년 보다 805억원이 증가한 12조 8,9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와 관련한 연말지출액은 51억원으로 전년 120억원 보다 69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연말지출이 크게 감소하는 관행을 탈피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행전안전부가 지자체별 집계 산정 중에 있어, 오는 10월에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경비와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축소,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등을 건의하는 등 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반딧불축제장 지나는 반딧불

나고 있다.

제22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지난 1일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반딧불 차림의 어린이들과 어둠을 밝히는 등이 길놀이를 하며 행사장을 지

〈관련기사 9면〉

당정청 "소득주도 보완책 마련해 경제정책 속도 높일 것"

전원회의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당정청 전원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정청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입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공동운명체가 돼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여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고, 당정청 간에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적극 홍보키로 뜻을 모았다. /뉴시스

5일 대북특사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대북특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시민과 '통' 하는 앱 공모전 오늘부터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문화공간·의료기관의 위치와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앱 등 공공서비스 활용사례를 모집하는 '전주시민과 통하는 전주 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앱 개발로 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 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시는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00만원)과 우수상(2명, 각 70만원), 장려상(4명, 각 40만원) 총 총 7팀을 선발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반드시 전주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jeonju.go.kr)을 통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을 개발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추석대비 소상공인 170억 지원

전북도-전북신보,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전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은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170억원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전북도, 전북신보에 따르면 영세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9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경영애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집중해 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영세소상공인이다.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전북신보는 기존 심사기준과 심사절차를 크게 줄여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달 동안 본·지점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7일 정도 걸리던 보증처리일수를 4일로 단축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추석명절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신보는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등 도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서민금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상담받거나 전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0-3333, 군산지점 452-0341, 익산지점 838-9377, 정읍지점 533-6411, 남원지점 633-7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16면 - 장애인을 친부모처럼